

# 「教授文化」가 建築에도

— 大學은 지키고 社會를 돕자 —

金 榮 洙

김영수건축연구소

우리 인간의 최고가치는 바로 지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류의 진화와 문화의 발전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모두 지성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지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이 자연 속에서 도태되지도 이미 오랜 옛날일 것이다.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이 지성 때문이다. 오늘의 사회에서도 지성을 가장 존중하고 추구하면서 이상의 심볼로 삼겨진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 내일에도 영원히 변치않을 부동의 진리임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토록 고귀한 지성은 오늘날에 와서 지성인의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엘리트적 역할을 다 함으로서 그 진가는 더 한층 빛나는 것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성의 최고봉은 역시 대학일 것이다.

대학은 선택된 지성의 관문인 동시에 영원한 지성인의 명예를 받는 숭고한 도장이다. 국가의 중추와 국민동량들이 바르게 배우고 옳게 익히며 장래의 용비를 가다듬는 상아탑이다.

이렇게 귀중한 핵심적 지성을 길러내는 막중한 지성 중의 지성, 바로 최고의 지성이 대학의 교수님들이다.

박학다재한 학문과 경륜은 타의 추종을 허용치 않고, 국가와 민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는 타의 비교를 불허한다.

정말 최고의 가치집단이 대학이요 지상의 석학행렬이 교수들이다.

존경과 선망의 눈들이 오로지 이곳으로 모아지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고,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치와 존립의 의 또한 역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과연 正道를 가고 있고 또 더 큰 목표를 향해 바람직하게 運身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지금 우리의 대학들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학생들은 본연의 학업과 인격에 충실하고 있으며, 교수님들은 본분의 연구와 지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4년의 잉태기를 조기탈출하려는 사회·정치적 과욕이 앞서 한 결국은 인큐베이트가 기다릴뿐이며,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문화·경제적 탐욕을 내세우는 한 중국은 파멸의 棺만 맛이 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여쭙고 싶다.

모두를 박차고 뛰쳐 나오면 학원의 정의는 누가 지킬 것이며 대학의 진리는 누가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유라고 왜곡한다면 더욱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대학에 있는 것만은 물론 아니다.

神聖視해야 할 대학의 책무와 자율을 흔들어 놓은 정책적 과소평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絶對視하는 교수의 이론과 능력을 마구 유린해 놓은 사회적 과대평가를 함께 叱咤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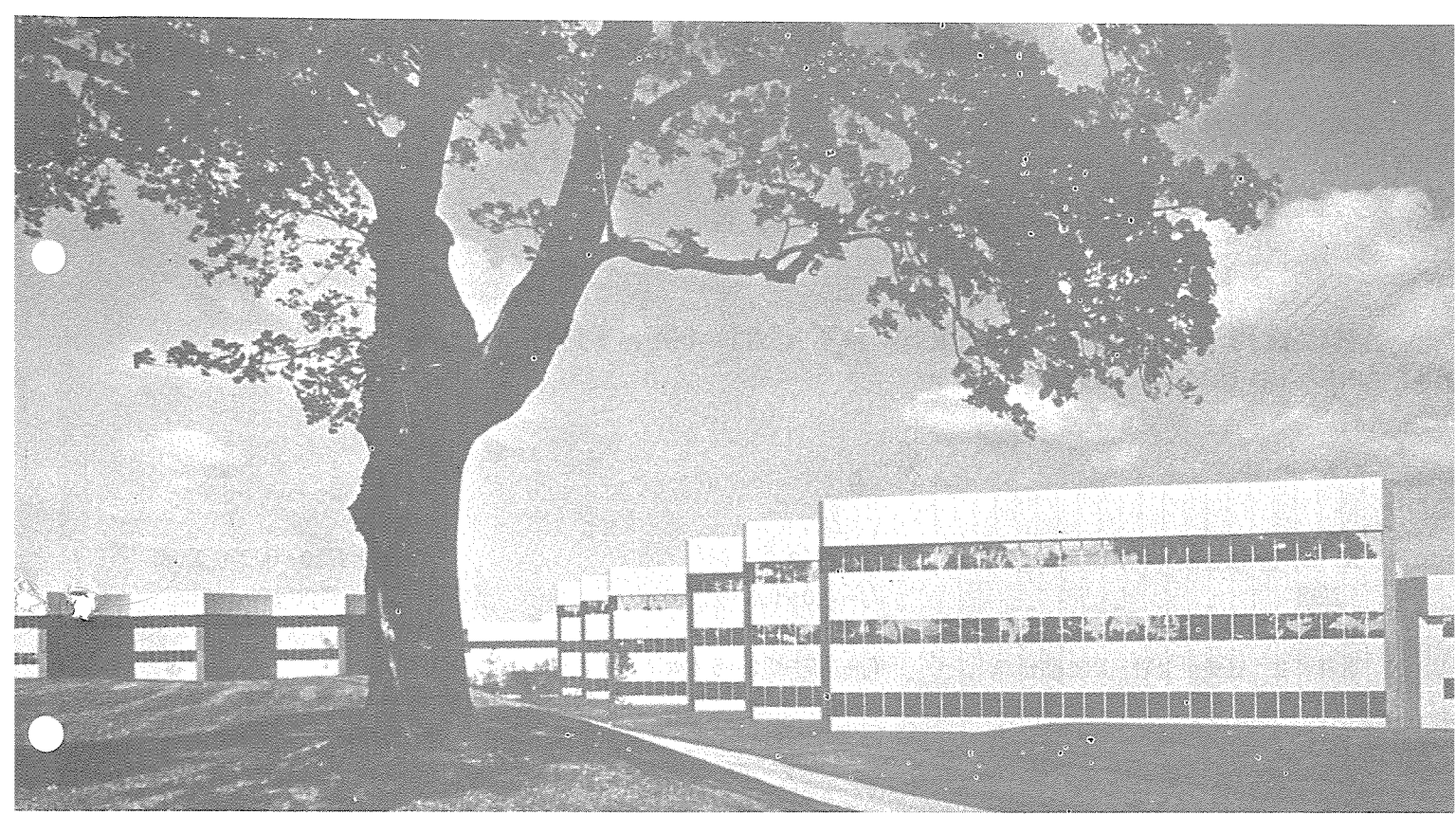
전자의 문제는 정치차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아 차치하고라도 후자의 문제가 가져다 주는 혼돈된 사고와 혼란한 질서는 아직도 그 문제의식의 감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다.

소말 「教授文化」가 정치·행정뿐 아니라 언론·산업에 이르기 까지 너무나 깊은 뿌리를 박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 많은 위원회는 교수들로 꼭 메워졌고 다시 정치 일선으로 완전탈바꿈이 이루어 지는 가 하면, 신문이나 잡지·브라운관의 教授一辺倒 편제가 엉뚱하게 실무 중심의 산업에 까지 깊숙히 관여하게 되는 可恐할 모순을 낳고 있음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존중해야 할 知的價值를 넘어 서서 理想論理의 자기중심적 「교수문화」가 독선이나 “오버 액션”을 통해 사회를 압도할 때의 실상과 허상을 우려치 않을 수 없어 하는 말이다.

우리의 건축설계파트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건축사법의 범주를 벗어 나면 각 단체는 건축과 교수님들의 각축장이요 모든 審議機構는 독점일색이다. 심지어 士法을 망각한 설계업무의 침식



과 교란은 어떠하며, 위장영업과 학생의 私用化는 정말 없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특히 士界에 “크로즈·옌”된 美觀審議문제는 어떠한가?

주요건축물의 거의 모두가 교수실의 속에서 창작과 실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나마 말단말석의 구청심의위원마저 송두리째 교수석으로 대체되었다.

영원한 師弟關係는 건축문화와 예술작품을 위해서도 영원한 주종관계를 형성치 않으면 안된다는 말인가?

이론과 실무의 한계가 영구히 그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여 두가지를 어설피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誤謬는 시정기간이 짧을수록 현명하다는 사실을 거듭이라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모자람을 채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마저 깡그리 다 엎어 버리는 自慢이 더 큰 독소로 개입될 소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실기와 실제 그리고 현업의 전문성을 설경험하거나 해보지 않고 同道라는 理想的講論만으로 결론지어 버리는 독단이 더 큰 弊로 노출될 우려를 금할 길 없는 것이다.

건축의 창작과 예술은 필생을 통한 경험적 所産이며 생활과 생업을 관통하는 苦痛과 喜悅의 集大成임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沒識들이 有識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일까?

언제나 모자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정은 감사의 눈치 속에 教授依存症을 낳고, 교수는 권력과 財貨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아닌 大學出의 匪流에 빠져 버리고, 고독에 지친 학생들은 울분과 성토로 얼굴을 돌려서 기성전체를 매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소왈 물고 물리는 교수문화의 참혹한 현실이다.

해일과도 같은 교수문화의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우리의 건축쪽도 강하게 때리고 있다.

이를 피해 방파제 위를 빠져 나갈 수 있는 수레는 바퀴가 둘이 있어야지 어느 하나가 빠져 달아나도 물 속에 휩쓸려 버리는 법. 교수와 학생이 함께 탄 대학의 수레나 이론과 창작이라는 건축의 수레 또한 다를 바 없다.

교수의 이론적 연구성과와 건축가의 창조적 작품성취라는 두 바퀴의 同時輪廻없이는 반문화의 추악한 건축상만을 역사의 방파제 밑에 남기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이제 彼岸으로 나와 우리 다 같이 (특히 건축의 3 단체를 중심으로) 弦樂과 管樂 그리고 打樂器가 합주하는 훌륭한 交響曲처럼 서로 아끼고 함께

어루만지며 공동의 建築目標를 위해 대합창을 불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함께 선 우리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수많은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和音이 없는 코러스는 이미 실패의 음악인 것처럼 우리의 화합이 없는 건축 또한 실패작이다.

아름다운 교향악이 심금을 울려 주듯 우리의 창조적 합작은 온 국민들의 가슴을 뚫듯하게 감동시킬 것이다.

바로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上向作用은 이러한 민심의 갈채와 평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요, 이는 또한 자발적 노력과 자조적 협심만이 그 근원적인 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지성 가운데서도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이론가와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건축실무팀의 하모니가 오도된 교수문화라는 언바란스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 건축인의 궁지와 예지가 꽃피우는 진정한 건축문화의 이상은 머지않아 바로 현실의 환희로 우리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시 한번 지성과 대학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사회를 風靡하고 있는 「教授文化」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건축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것인 동시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꼭 얻어야만 하는 우리 건축 운명의 대명사임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